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9.24 미-중 정상회담 시사점

무역갈등 완화, 기술패권 경쟁 심화 전망

- 9.24 미-중 정상회담 시사점: Trade mini deal, 전략적 안정관계로 전환
- 향후 전망: 무역갈등 완화 vs. 기술패권 경쟁 심화

9.24 미-중 정상회담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미-중 정상간 회담은 예상대로 전략적 안정 관계 유지에 대한 상호 의사와 향후 추가 협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오는 11월 10일 만료 예정이었던 무역 합의를 2개월 연장하였고, 5월부터 논의된 무역위원회의 가동 성과로서 300억 달러 비민감재에 대한 관세 인하안을 발표하였다. 석탄 구입, 희토류 등 사안에 대한 온도 차가 좁은 합의 연장의 배경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국 모두 오는 11월과 12월 APEC, G20 회담에서 후속 만남을 기약하고 있어, 향후 합의 이행 점검과 무역 합의 추가 연장 등의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시사점: Trade mini deal, 전략적 안정관계로 전환

- 세 가지 포인트:** 첫째, 미-중 무역갈등은 완화구간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미-중 정상 이 “전략적 안정 관계 구축”에 합의함으로써 미-중 관계 설정이 『체제경쟁에서 전략적 안정관계』로 순화되었다. 둘째, 무역 부문은 Trade mini deal에 합의하였다. 양국은 무역위원회를 설립하고 <3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인하 조치와 관세 휴전기간 연장을 결정하였다. 교역 협상은 11월 APEC 정상회담까지 대상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셋째, 당분간 미-중 AI 기술경쟁과 안보 공조가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AI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였다. 다만, AI 패권전쟁 성격 상 미국과 중국의 AI 개발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범 설정보다는 안보협력에 집중할 것이다.

향후 전망: 무역갈등 완화 vs. 기술패권 경쟁 심화

- 향후 미-중 교역 정상화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중국의 핵심이익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교역 정상화를 통해서 농산물, 상품 수출 확대와 희토류 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고 중국은 대만 문제와 희토류를 연계하여 Trade détente에 나설 수 있다. 위안화 환율은 강세 사이클이 이어질 것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위안화 국제화, 내수 확대를 위해 점진적인 위안화 강세를 용인하고 있고 달러 천문학적인 경상흑자를 통해 달러 유동성에 여유가 있다. 반면에, 미-중 AI 첨단기술 패권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적극적인 AI 모델개발, 기술개방과 글로벌 규범화에 나서고 있어 미-중 AI 주도권 경쟁심화는 불가피하다. 중국 첨단 제조의 부상은 글로벌 공급망 구조재편과 이해충돌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9.24 정상회담 주요 내용

미-중 전략적 안정 관계로 전환

미·중 정상간 회담은 예상대로 전략적 안정 관계 유지에 대한 상호 의사와 향후 추가 협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오는 11월 10일 만료 예정이었던 무역 합의를 2개월 연장하였고, 5월부터 논의된 무역위원회의 가동 성과로서 300억 달러 비민감재에 대한 관세 인하안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약 10가지 종류의 대상 품목을 발표하는 한편 구체적인 인하 폭, 관세율, 시행일 등은 밝히지 않았다. 28일 후속 발표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 국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란 핵무기 미개발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모았다. 또한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대만 독립 반대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지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측 공식 발표문에서는 모두 제외되었다.

관심을 모았던 AI와 관련해서는 양국 모두 AI를 전략적 경쟁 대상이자 관리 대상으로써 인식을 상호 교환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AI 협의회를 신설하고, AI 사고를 대응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데 합의했으며 11월 추가적인 실무급 회의를 예고하였다. 또한 이미 회담 전 AI 수출입 통제는 의제가 아니라고 밝힌 만큼 기술 통제에 대한 별도 조치는 없었다.

한편 중국 측의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미국은 1) 중국의 향후 2년간 최소 연간 1,000만 톤의 석탄 구입을 합의하고, 2) 희토류 및 희귀 광물의 선적량 정상화, 3) 정제유 증산 요청 등을 요구했다고 밝힌 반면, 중국은 이에 대한 공식 발표가 전무하였다. 특히 희토류와 관련된 양측 간의 온도차가 2개월 무역 연장 합의의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 발표를 살펴보면, 지난 합의 이후 일부 사항이 미이행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양국 모두 오는 11월과 12월 각각 APEC, G20 회담에서 두 정상간 만남을 기약하고 있는데, 후속 회담에서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과 무역 합의 추가 연장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6.9월 미중 정상회담 성과 핵심 요약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양국 관계	• 건설적·전략적 안정 관계 지속 • APEC(11월 18~19일)·G20(12월 14~15일) 상호 참석 의향	
무역	• 11월 10일 만료 예정인 무역합의 2개월 연장 • 무역·투자위원회 가동 • 300억 달러 비민감재에 대한 관세 인하 - 美 수출품: 농산물, 수산물, 원목 및 목재, 화장품, 의료기기 - 美 수입품: 소형 가전제품, 장난감, 홀리데이 장식품, 아동용 카시트 • 中 2027~28년 각각 최소 1000만 톤의 석탄 수입 • 희토류·희귀 광물 공급 부족 관련 협의 지속, 선적량 정상화 목표 • 정제유 증산 요청	중국은 아직 세부 항목 발표 X 미국만 발표
AI	• AI 협의회 신설 및 11월 후속 논의, AI 사고 소통 채널 구축	미국은 AI 대신 SI(Super Intelligence, 초지능)로 명명
국제	• 이란 핵무기 미개발 약속 이행 촉구, 통행료 부과 불가	
기타	• 마약 규제/단속 협력 지속	

참고: 9월 26일 기준

자료: 중국 신화통신, 백악관 factsheet, 삼성증권

시사점

Trade mini deal

- 9.24 워싱턴 미-중 정상회담이 마무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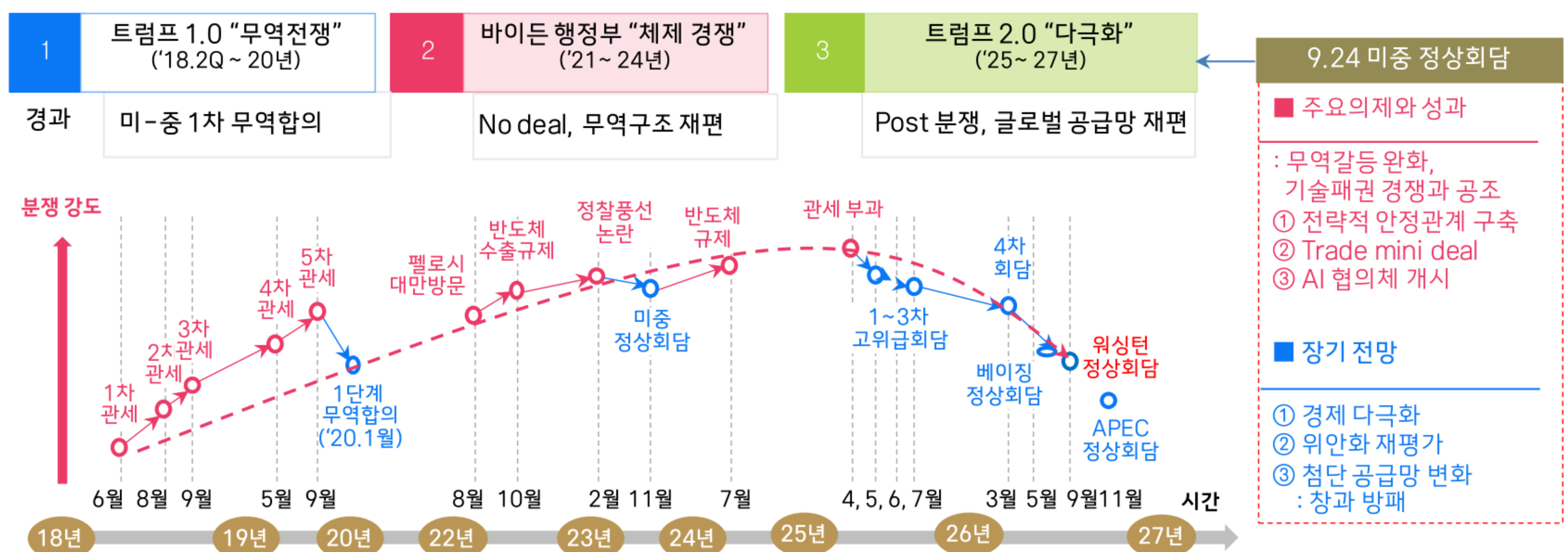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유권자가 민감한 경제적 성과가 필요했고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핵심이익 "One China와 경제성장"에 대한 동의를 요구한 바 있다. 9.24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의제로 ① 무역/관세, ② 첨단기술/공급망 통제, ③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협의가 진행되었는데 양국은 "건설적, 전략적 안정 관계" 구축과 무역/관세 부분과 AI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였으며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중 무역갈등은 완화구간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18년 트럼프 대통령의 대 중국 관세부과로 시작된 미중 분쟁은 "트럼프 1기 무역전쟁" → "바이든 행정부 체제 경쟁"으로 갈등구조가 심화되었으나 9.24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전략적 안정 관계 구축"에 합의함으로써 무역, 첨단기술/공급망, 지정학 부문에서 협력과 공조 영역을 확인하였다. 미-중 관계 설정이 『체제경쟁에서 전략적 안정관계』로 순화되었다.

둘째, 무역/관세 부문은 Trade mini deal에 합의하였다. 양국은 무역위원회의 매커니즘을 설립하고 <300억 달러> 규모의 대등한 관세 인하 조치에 합의하였으며 관세 휴전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3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인하는 미국 농산물 수입확대를 위한 교역 정상화의 Easy deal이 매듭지어진 것이다. 교역 협상은 11월 APEC 정상회담까지 대상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셋째, 당분간 미-중 AI 기술경쟁과 안보 공조가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미중 인공지능 대화를 개최하여 AI 관련 위험과 이익에 대해 교류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AI 패권전쟁 성격 상 미국과 중국의 AI 개발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범 설정보다는 안보협력에 집중할 것이다. 미-중 AI 경쟁은 치열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반도체 공급 병목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중국은 반도체 공급 대비 수요 증가 속도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반도체 쇼티지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미-중 분쟁 진행경과와 향후 전망



자료: 삼성증권 정리

향후 전망

무역갈등 완화 vs. 기술패권 경쟁 심화

- 미국과 중국은 현재 무역의 갈등 구도 완화와 미래 무역(첨단 기술)의 패권경쟁 심화 국면을 동시에 보여 주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Trade détente, 교역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중장기적인 AI 주도권 경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Trade détente 추진: 『美 경제적 이익과 中 핵심이익』 미-중 교역 정상화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중국의 핵심이익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8년 간의 무역분쟁 기간 동안 중국의 급격한 미국 의존도 하락(중국 대 미국 수출의존도 '17년 19.1% → 26년 상반기 10.2%)으로 협상력 약화가 초래된 바 있다. 미국은 교역 정상화를 통해서 농산물, 상품 수출 확대와 중국 희토류 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중국은 9.24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대만 독립 반대, One China”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응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은 대만 문제와 희토류를 연계하여 양국 교역범위를 확대하는 Trade détente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위안화 재평가: 『중장기 강세 사이클』 위안화 강세 사이클이 이어질 것이다. 9월 18일 위안화 환율은 6.7 위안/달러를 상향 돌파하며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위안화 환율은 연초 이후 4.1%, 2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8.3% 절상되었다. 위안화의 정부환율(정책)과 시장환율은 강세를 지지하고 있다. 시진핑 지도부는 위안화 국제화, 내수 확대를 위해 점진적인 위안화 강세를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경상흑자로 인해 달러 유동성은 풍부하다. 15.5 경제계획 기간 동안 위안화 환율은 '15년 위안화 시장화 조치 이후 상단 6.2위안/달러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AI 기술패권 전쟁: 『미-중 AI 주도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구조재편』 미-중 AI 첨단기술 패권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추가적인 교역 확대 가능성을 열어 두었으나 인공지능 기술 협상은 “AI 주도권 경쟁 지속, 위험관리 공조”라는 의견조율로 매듭지어졌다. 중국은 적극적인 AI 모델개발, 기술개방과 글로벌 규범화에 나서고 있어 미-중 AI 주도권 경쟁심화는 불가피하다. 중국 첨단제조업의 부상은 글로벌 공급망 구조재편과 이해충돌을 촉발하는 요인이다. 팬데믹 이후 중국 전기차 밸류체인이 폭발적인 해외 시장점유율 확대와 레거시 자동차업계의 경쟁력 후퇴가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중국은 중장기 성장전략으로 “제조 고도화와 내수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중국 첨단제조업의 해외생산 확대와 내수 시장 개방이 동반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대미국 농산물/에너지 수입 회복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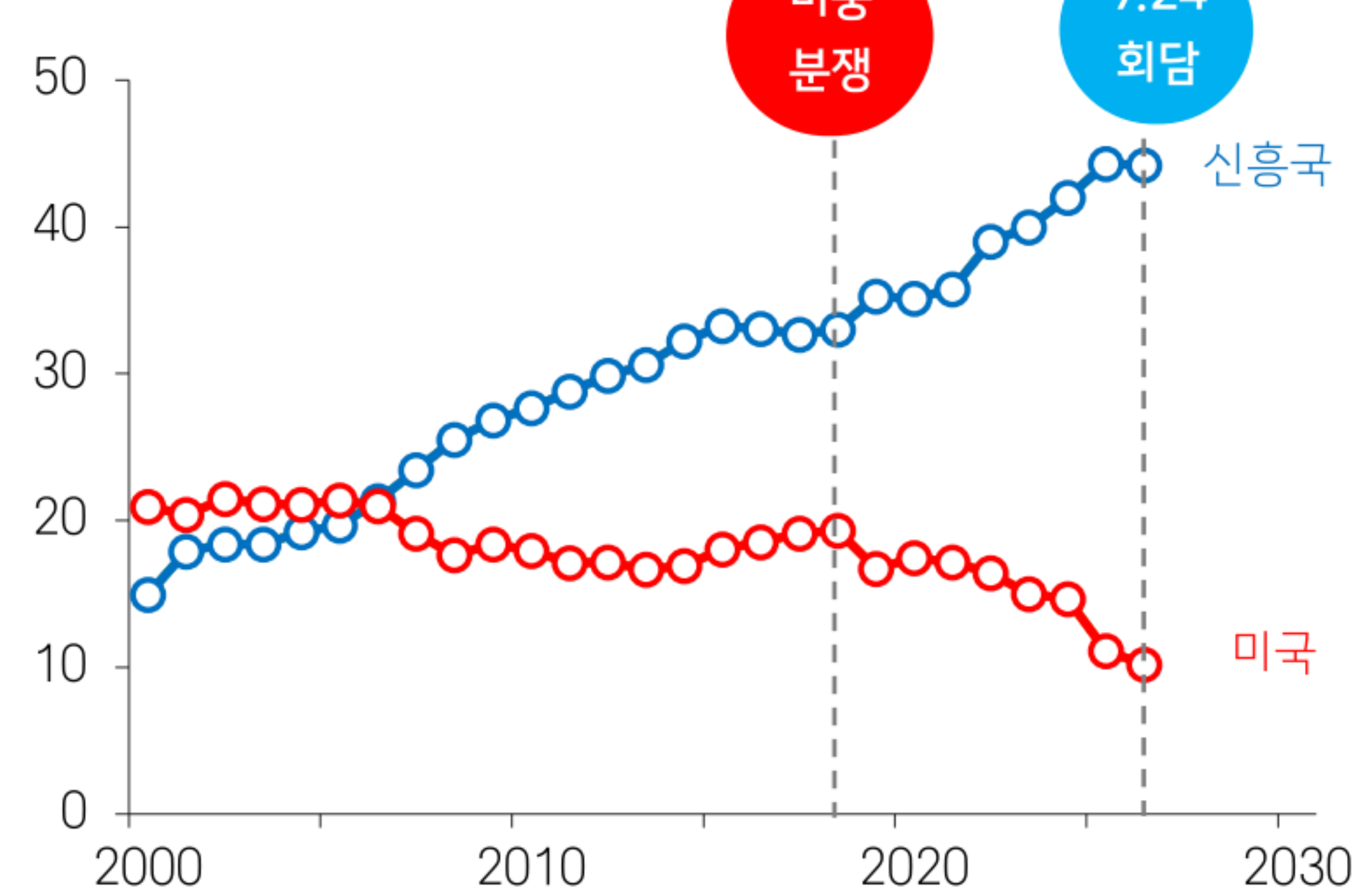
(십억달러, 12개월 누적 합계)



참고: '26년 8월말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미-중 교역 정상화(Trade détente) 추진

(중국 수출비중, %)



참고: '26년 상반기 기준
자료: CEIC, 삼성증권

미-중 분쟁 이후 중국 무역구조 변화

수출비중(%)	'17년 *미중분쟁	'25년 *트럼프 2기	'26,1H	'25년 수출액 (십억 달러)	'17~25년 CAGR (%)
미국	19.1	11.1	10.2	420.3	(0.4)
EU	16.5	14.9	14.7	560.2	5.2
한국+ 대만 + 일본	12.6	10.2	10.7	385.6	2.9
소합	48.3	36.2	35.6	1,381	
아세안	12.5	17.7	18.6	666.3	11.3
BRICS+남미	10.8	14.2	14.1	536.9	10.4
중동 + 아프리카	9.8	12.8	11.5	483.8	10.2
소합	33.1	44.7	44.2	1,687	
홍콩	12.5	11.6	10.5	337.1	2.2
합계				3,770.60	6.6

자료: CEIC,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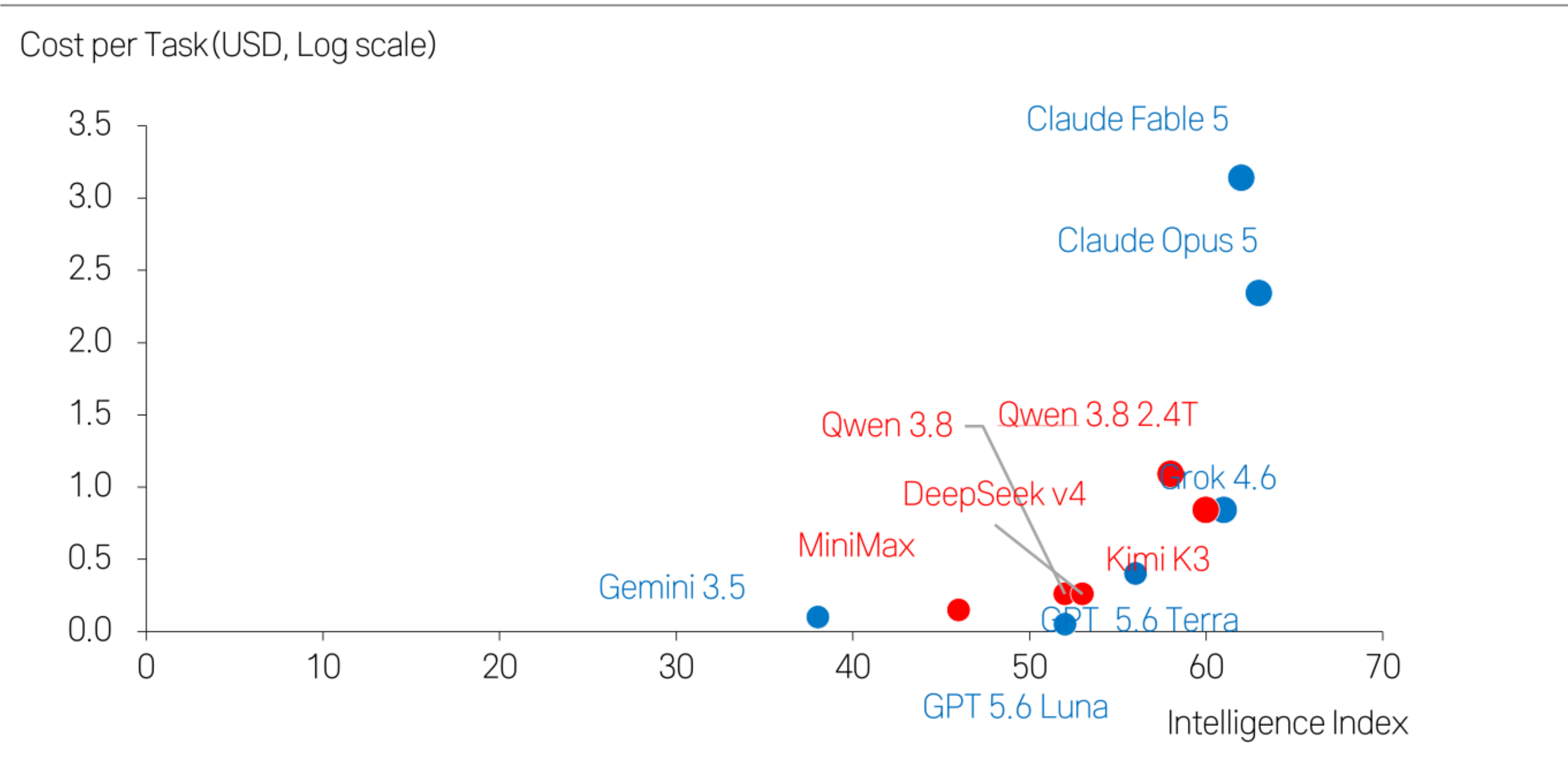
최근 10년 간 위안화/달러 환율 Dynamics: 나 홀로 위안화 강세 사이클



참고: '26년 9월 24일 기준

자료: CEIC, 삼성증권

미-중 AI 기술 경쟁 심화 vs. 보안 공조



참고: '26년 9월 현재

자료: Artificial Analysis, 삼성증권

Samsung Securities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